

한교총 3.1운동 제105주년 한국교회 기념예배

“105년 전 3.1운동,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초석 됐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이 주최한 '3.1운동 제105주년 한국교회 기념예배'가 지난 25일 연세중앙교회에서 개최됐다.

대표회장 장종현 목사는 기념사를 통해 “신앙 선배들의 나라 사랑과 구국정신을 계승하여 저출산, 고령화, 기후위기 극복 등

새로운 국민의 나리를 세우는 한국교회가 되자”고 당부했다.

김관디아시 5장 13~15절을 본문으로 ‘영적 자유를 누리리’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김의식 목사는 “한국교회가 삼일운동의 정신을 계승해 복음으로 조국을 뜨겁게 사랑하고, 사랑의 종노릇, 십자

기의 복음 사수하며, 북녘 동포와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파하는 한국교회가 되자”고 강조했다.

한교총은 이날 성명서도 발표했다. 한교총은 “105년 전 옥거례의 열망으로 지켜낸 자유대한민국이 정의와 평화를 이어 가길 소망하며 북한에도 자유와 인권과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한반도의 통일을 기도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교회는 건강한 성경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한국이웃을 돌보고 암극화 해소와 치유에 힘쓰며 선열들이 남긴 정의, 인도, 생존, 존엄의 가치에 따라 공공의 선을 실현해 이웃과 함께 암극화, 자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혼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웨슬리언교단장협의회, 성명서 내고 의료계 집단행동 중단 촉구

“집단행동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가달라”

웨슬리언교단장협의회는 지난 2월 2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사들의 즉각적인 병원 복귀를 촉구했다. 웨슬리언교단장협의회에는 본 교단을 비롯한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교회,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구세군 대한본영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의대 정원 확대는 역대 정부마다 논의한 것으로 의료계 집단반발로 미루어져 있을 뿐, 언젠가는 시행해야 할 국가적 중대 사안이었다. 이는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며 공공의료를 확충하

여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절정”이라며 “향후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시작으로, 장기적이 고 체계적인 보건 의료정책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 생명이 우선으로 보호받는 의료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웨슬리언교단장협의회는 의사들에게도 “우리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밤낮 환자들을 돌봐온 전 공의들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정부와 대화하며, 다시 환자 곁으

로 돌아가 생명 수호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다.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장종

현 목사는 지난 2월 14일에 이어

정부가 정한 전공의 복귀 날인 29

일 발표한 2차 성명서를 통해 “의

대 정원을 늘린다는 이유로 환자

의 곁을 떠나 집단행동을 하는 사

례는 세 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

책임감을 가진 의사는 절대로

환자의 곁을 떠나서는 안 된다.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태도 자체가

국민 눈높이를 이해하지 못한 처

사”라고 지적했다.

로 돌아가 생명 수호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다.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장종

현 목사는 지난 2월 14일에 이어

정부가 정한 전공의 복귀 날인 29

일 발표한 2차 성명서를 통해 “의

대 정원을 늘린다는 이유로 환자

의 곁을 떠나 집단행동을 하는 사

례는 세 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

책임감을 가진 의사는 절대로

환자의 곁을 떠나서는 안 된다.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태도 자체가

국민 눈높이를 이해하지 못한 처

사”라고 지적했다.

로 돌아가 생명 수호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다.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장종

현 목사는 지난 2월 14일에 이어

정부가 정한 전공의 복귀 날인 29

일 발표한 2차 성명서를 통해 “의

대 정원을 늘린다는 이유로 환자

의 곁을 떠나 집단행동을 하는 사

례는 세 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

책임감을 가진 의사는 절대로

환자의 곁을 떠나서는 안 된다.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태도 자체가

국민 눈높이를 이해하지 못한 처

사”라고 지적했다.

로 돌아가 생명 수호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다.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장종

현 목사는 지난 2월 14일에 이어

정부가 정한 전공의 복귀 날인 29

일 발표한 2차 성명서를 통해 “의

대 정원을 늘린다는 이유로 환자

의 곁을 떠나 집단행동을 하는 사

례는 세 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

책임감을 가진 의사는 절대로

환자의 곁을 떠나서는 안 된다.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태도 자체가

국민 눈높이를 이해하지 못한 처

사”라고 지적했다.

로 돌아가 생명 수호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다.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장종

현 목사는 지난 2월 14일에 이어

정부가 정한 전공의 복귀 날인 29

일 발표한 2차 성명서를 통해 “의

대 정원을 늘린다는 이유로 환자

의 곁을 떠나 집단행동을 하는 사

례는 세 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

책임감을 가진 의사는 절대로

환자의 곁을 떠나서는 안 된다.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태도 자체가

국민 눈높이를 이해하지 못한 처

사”라고 지적했다.

로 돌아가 생명 수호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다.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장종

현 목사는 지난 2월 14일에 이어

정부가 정한 전공의 복귀 날인 29

일 발표한 2차 성명서를 통해 “의

대 정원을 늘린다는 이유로 환자

의 곁을 떠나 집단행동을 하는 사

례는 세 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

책임감을 가진 의사는 절대로

환자의 곁을 떠나서는 안 된다.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태도 자체가

국민 눈높이를 이해하지 못한 처

사”라고 지적했다.

로 돌아가 생명 수호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다.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장종

현 목사는 지난 2월 14일에 이어

정부가 정한 전공의 복귀 날인 29

일 발표한 2차 성명서를 통해 “의

대 정원을 늘린다는 이유로 환자

의 곁을 떠나 집단행동을 하는 사

례는 세 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

책임감을 가진 의사는 절대로

환자의 곁을 떠나서는 안 된다.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태도 자체가

국민 눈높이를 이해하지 못한 처

사”라고 지적했다.

로 돌아가 생명 수호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다.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장종

현 목사는 지난 2월 14일에 이어

정부가 정한 전공의 복귀 날인 29

일 발표한 2차 성명서를 통해 “의

대 정원을 늘린다는 이유로 환자

의 곁을 떠나 집단행동을 하는 사

례는 세 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

책임감을 가진 의사는 절대로

환자의 곁을 떠나서는 안 된다.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태도 자체가

국민 눈높이를 이해하지 못한 처

사”라고 지적했다.

로 돌아가 생명 수호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다.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장종

현 목사는 지난 2월 14일에 이어

정부가 정한 전공의 복귀 날인 29

일 발표한 2차 성명서를 통해 “의

대 정원을 늘린다는 이유로 환자

의 곁을 떠나 집단행동을 하는 사

례는 세 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

책임감을 가진 의사는 절대로

환자의 곁을 떠나서는 안 된다.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태도 자체가

국민 눈높이를 이해하지 못한 처

사”라고 지적했다.

로 돌아가 생명 수호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다.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장종

현 목사는 지난 2월 14일에 이어

정부가 정한 전공의 복귀 날인 29

일 발표한 2차 성명서를 통해 “의

</div